

한국으로 가는 수송선에 오르는 네덜란드 병사들. 오른쪽 사진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교전 중에 다친 병사들 옮기고 있는 반호이츠 부대원들. 반호이츠 대대에서 전쟁 중 121명이 전사했다.

## 사진전, 그 이상의 사진전

유엔평화기념관 6월14일부터 네덜란드 참전용사 특별전

200장 사진 속 네덜란드군 도운 한국인 카투스 발굴 기대감

유엔평화기념관이 네덜란드 6·25 참전용사들의 활동을 다룬 특별 사진전을 마련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네덜란드참전용사회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과 네덜란드군이 입었던 당시 군복, 작전지도, 유엔평화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유물 등을 선보인다. 사진 패널 외에 현지 참전용사들이 소장하고 있던 개인사진 200장도 따로 전시한다.

네덜란드는 6·25때 합정 1척과 보병 1개 대대를 파병했다. 해군 구축함은 미 극동 해군과 함께 작전을 펼쳤다. 특히 반호이츠로 불리는 보병대대는 미 제2사단에 배속돼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작전을 펼쳐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보병대대에서는 121명이 전사했다. 이번 특별전의 200여 개인 사진들은 생존한 반호이츠 부대 참전용사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기증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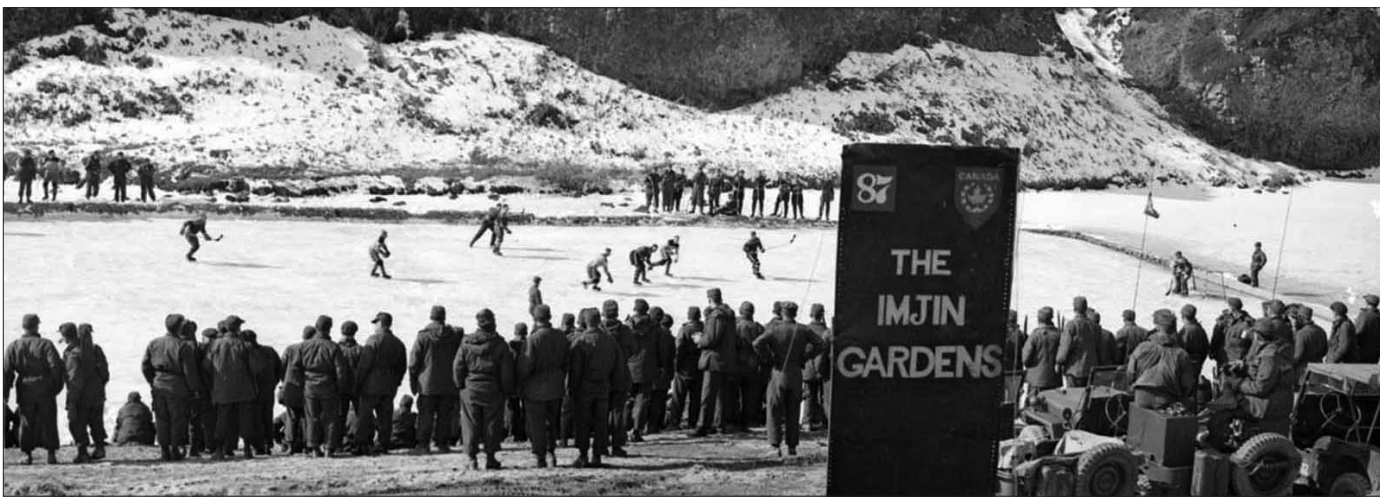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전쟁 사진이 전시·관람에

만 머물지 않고 사진 속 인물들을 추적·발굴해 한국과의 인연을 재조명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낮은 환경과 언어 때문에 반호이츠부대는 작전수행을 위해 한국인 카투스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파부색과 국적을 뛰어넘는 깊은 우애가 싹텄다. 전투를 함께 치르면서 한국인 카투스도 20명이 전사했는데 안타깝게 이들의 명단은 파악되지 못했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회(VOKS)는

뒤늦게 함께 싸우다 숨진 한국인 전우들의 이름을 찾기에 나섰고 최근 용호동 용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캄벨 에이시아 양의 도움으로 13명의 이름을 찾는데 성공했다.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이기도 한 에이시아 양은 '묘마 외교관'으로 불릴 만큼 외국 참전용사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진전에 온 관람객들이 사진 속 인물 중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7명의 카투스들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적'을 꿈꾸며 마련됐다. 사진전은 6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념관 1층 4D영상관에서 개최된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월요일 휴관이며 무료이다. ☎ 901-1400 www.unpm.or.kr



1952년 겨울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 방판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하키 경기를 열고 있다. '임진 클래식'으로 불린 이날 경기로 잠시나마 전쟁의 공포와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잊었다.

## 한국·캐나다 70년 우정의 시작을 추모하며



캠벨 에이시아의 평화를 찾아서

“한국과 캐나다의 영원한 우정”.

우리 가족의 텐트 위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말이다. 7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왔으니 그동안 쌓인 우정은 얼마나 깊을까. 얼마 전 우리 가족은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는 아빠의 고향이자 나에게도 대한민국에 이어 또 하나의 조국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5일 국외기도당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4회 국회동심한마당에서 100개가 넘는 행사 부스 가운데 우리 가족도 부스 하나를 허락받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특히 6·25때 전사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위해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촌 언니와 친구까지 찾아와 우리를 도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몇 달을 준비한 참가방 15개를 나눠 들고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나 친구가 된 캐나다 참전용사 데니스 무어 할아버지가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겨울, 맹추위와 한수병을 달래기 위해 공중 열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하키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어 할아버지가 선수로 뛰었다. 원래는 무어 할아버지도 국회동심한마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 했는데 안타깝게 사정이 생겨 그러질 못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무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무어 할아버지는 6·25 때 13개월 동안 PPCLI(the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부대에서 근무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1951~1952년 사이 찍은 사진들을 편지로 보내셨는데 무섭고 추운 전쟁 중에 피어난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에는 처음으로 김치맛을 소개해 준 따뜻한 한국인 가족이 있었고, 전쟁에서 같이 싸울 수 없어 무기라도 나르겠다며 최전방까지 함께한 용감한 세 명의 청년도 있었다. 카빈총을 다룬 적 없는 한국 청년에게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캐나다 군인의 모습도 담겨있었다. 땀방울 얼어붙은 임진강에서 하키를 하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적군과 지프차로 5분 거리의 최전방에서 잠시나마 행복해 하는 표정이 사진에 담겨있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

에게 최전방에서 희생된 군인들과 치열했던 가평전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열차 파괴단(Train Buster Club)'으로 불린 네덜란드 구축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날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캐나다 전몰용사 이름 불이기를 진행했다. 6·25전쟁기 가운데 미국, 영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캐나다는 516명이 전사했고 그 중 378명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우리 가족은 캐나다 참전용사의 이름을 옮겨 적을 양귀비(Poppy) 스티커를 몇 달에 걸쳐 준비했다. 붉은 양귀비는 서양에서 추모의 의미를 가진 꽃이다. 방문객에게 양귀비 스티커에 지난해 남구청에서 발간한 영자신문 'NEVER FORGET YOU ALL'에 실린 전사자 명부를 근거로 한분 한분씩 이름을 옮겨 적게 했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자원 봉사자 언니와 오빠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왔다. 우리 할머니는 열을 그린 부채 만들기 그리고 캐나다 음악과 술가락 연주를 방문객에게 가르쳐 주었다. 매디슨 언니와 브래들리 오빠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줄 선 아이들의 얼굴과 손에 페인팅을 해 줬는데 나중에는 손가락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은 가족이 달라붙은 덕분에 오후 무렵 캐나다 전몰용사 378명의 모든 이름이 적힌 배너가 완성될 수 있었다. 완성된 배너는 캐나다 할아버지의 고향에 참전용사들이 즐겨 모이는 회관에 선물할 생각이다.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다시 부산으로 향하는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행복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We will remember Lest we forget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할게요)'. 참전용사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 분이라도 더 감사를 전드리기 위해 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용문초 6



캠벨 에이시아 양은 캐나다-한국 가족과 함께 지난 5월 25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6·25 참전 캐나다 전몰용사 378명의 이름을 적는 추모 행사를 가졌다. 방문객과 함께 완성한 배너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야외옥상 공원 조성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관장 윤태석) 야외 옥상이 그늘벤치와 솔밭쉼터 등을 갖춘 공원으로 최근 거듭났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지난 5월 11일 추모공원·추모계단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역사관은 총 사업비 2억6,0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추모공원·추모계단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관목식재, 그늘벤치 설치, 솔밭쉼터 조성 등으로 그늘 공간을 확대하고 추모조형물(화강석 벤치), 테라키 바람개비 등도 설치해 추모 공간의 의미도 더했다. 또 4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총 110m 길이의 추모계단에는 6개의 벽면에 일제강제동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됐다. ☎629-8600

## “명예구민패 보여 남구주민된 자부심 느껴”

제임스 그룬다씨 감사편지 보내와

남구 명예구민이 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다(88)씨가 한국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뒤 최근 남구청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명예구민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준 남구청장과 남구주민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로 시작된 그룬다씨의 편지는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명예구민패를 보여 자부심을 느낀다”고 적고 있다.

그룬다 씨는 6·25전쟁 때 시신수습팀으로 북부하며 90여구의 아군 시신을 수습하는 등 유엔기념공원 조성에 힘을 쏟았고, 1988년부터는 자비를 들어 30년째 매년 유엔기념공원을 혼자서 방문해 동료들의 묘를 돌보고 있다. 이에 남구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 4월 10일 명예구민패를 수여하고 시민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8부두 세군무기실험실

추방 주민대회

△일시 : 6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 감만동 홀플러스 앞  
△주최 : 감만동 8부두 미군부대 세군무기 실험실 철거 남구대책위

유엔기념공원에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2300여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이번 호부터 이들 안장자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전몰용사들의 스토리를 발굴해 지면으로 소개한다. 그들이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은이라 믿기 때문이다.

## 스물다섯 생일날 산화한 중군기자

이달의 참전용사  
데릭 아서 고든 피어시

데릭 아서 고든 피어시(Derek Arthur Gordon Percy)의 묘비에는 소속 부대명이 '로이터(Reuters)'로 적혀 있다. 로이터통신의 중군기자가기 때문이다.

피어시는 1938년 12월, 2차대전이 발발하자 부모를 따라 호주로 피신했다. 이후 시드니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입사했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일본 오사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6·25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특파돼 전쟁의 참상을 전세계에 타전했다. 그는 1951년 5월 28일 오후 5시 무렵 의정부 인근에서 지프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지뢰를 밟으면서 사망했다. 이 날은 그가 25번째 생일을 지낸 다음날이었다. 이 사고로 캐나다 공보담당 장교와 영국군 운전사가 함께



유엔기념공원 피어시 기자의 묘.

깨 숨졌다. 사고가 없었다면 피어시는 2주 후 한국을 떠나 고향에 그리던 시드니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었다. 2차대전 종전으로 영국으로 돌아갔던 그의 부모도 피어시와 함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영국을 떠나 여객선을 타고 호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피어시의 부모는 멜버른 항구에서 아들 대신 아들의 부고장을 받아야 했다.

한편 6·25때 피어시를 포함한 17명의 서방 중군기자가 취재 도중 산화했다.

## 남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돕는다

남구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에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문사'(疑悶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인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사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동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도 접수 가능하다. 위원회 대표전화 문의의 ☎02-6124-7531~2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사실·피해 신고 받습니다

○신고기간 : 2019. 12. 23. 까지  
○신고자적 : 관련자 및 유족, 친족 등 진상규명 관련 사실 알고 있는 자

○문의전화 : 010-9897-7910  
○홈페이지 :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6월 소식

기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관람료	문의처
부산 박물관	제17회 문화재 그리기대회 <당일 추첨을 통해 지정된 전시실에서 유물을 보며 문화재 그리기>	6. 3. (월) 오전	부산박물관 전시실	무료	610-7184
	바울과루터 <부산박물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유엔평화기념관-유엔기념공원-부산박물관>	6. 16. (일) 오후	부산박물관 및 UN평화문화특구 일대	무료	610-7184
	토요박물관교실 <부산의 독립운동관련 수업 및 포인아트로 테라키 만들기>	6. 22. (토) 오후	부산박물관	무료	610-7184
	부산문화가 있는 날 <이비디 예술다움공간>	6. 28. (금) 오후	부산관 앞 데크	무료	610-7181
	<인형의 집 Part 2> '2017 토니샤 수상' 노라가 돌아왔다!	6. 01. (토) 15:00/1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재)부산 문화회관	어린이 뮤지컬 아바! 우리굴리놀자	6. 01. ~6. 30. (화~일) 11:00	부산문화회관 [사립채극장]	전석 2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현정>	6. 14.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전캄레르>	6. 22.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	
	존 필리아와 <신의 아그네스>	6. 20. (목)~22. (토) 평일 : 19:30 주말 : 15:00, 18:00	부산문화회관 [사립채극장]	전석 2만원	607-6000
	제6대 수석지휘자 이명근 취임연주회 <운명>	6. 24. (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6. 26.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16만 R석 13만 S석 10만 A석 7만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5 <오래된 이야기>	6. 26. (수)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별의 기원>	6. 28.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교향악단 창단 25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6. 29.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000원	
	31운동 및 임시수립 100주년 기념 '태극기'展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월요일 휴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		629-8600
부산 예술회관	31운동 및 임시수립 100주년 기념 '전쟁과 인권 상영회' 상영작 : 태극기 휘날리며 '인문학 특강'	6. 16. (일) 14:00			629-8631
	강사 : 송의정 부산박물관 관장 주제 : 새롭게 밝혀진 홍난파의 실제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6. 15. (토) 14:00			
	주최 : (일정 및 시간 유선 협의)				
	주최 : (일정 및 시간 유선 협의)				
	주최 : (일정 및 시간 유선 협의)				
유엔평화기념관	작은영화콘서트<타인의 삶>	6. 18. (화) 16: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12-1372
	문화가 있는 날 <경인민요와 춤 그리고 타악이 있는 날>	6. 26. (수)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2019 UN총회 기념사업회 해의행사특별기획공연	6. 10. (월)까지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unpm.or.kr)	95만원	901-1402
	2019 국제기구방문 및 진로탐방프로그램 참가자모집	6. 10. (월)까지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unpm.or.kr)	500만원	901-1402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5회 종경과 감사의 UN PEACE ROAD	6. 1. (토)	UN평화문화특구 일대	무료	901-1402
유엔평화기념관	호국보훈의 달 기념평화문화행사	6. 28. (금)	국립부산국악원	무료	901-1402
	피해분류 : 피인정 허어로	매주 화~금	유엔평화기념관 및 유엔기념공원	무료	901-1406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6월 정기화경경쟁행사	6월 매주 토요일	UN평화문화특구 일대	무료	901-1402